

# 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9

I. 일반개황 .....	2
II. 경제동향 .....	3
III. 정치·사회동향 .....	10
IV. 국제신인도 .....	13
V. 종합의견 .....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66천 km <sup>2</sup>	G D P	496 억 달러(2010년)
인구	20.41 백만명(2010년)	1 인 당 G D P	2,428 달러(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ri Lanka Rupee (SLR)
대외정책	독자적 실리노선	환율(달러당)	113.06(2010년)

- 인도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7분의 2 수준이며,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약 2,000만 명임. 내수시장과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02년 이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연 6~7%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해 왔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5%에 그쳤음.
- 2009년 5월에 25년 이상 계속된 정부와 타밀반군의 내전이 종식되었으나, 여전히 싱할리족과 타밀족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 마힌다 라자파크세(Mahinda Rajapakse) 대통령이 2010년 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여당연합인 통일인민자유연합(UPFA)이 동년 4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둠에 따라, 정치기반이 굳건해졌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sup>f</sup>
경제성장률	6.8	6.0	3.5	8.0	8.2
재정수지 / GDP	-6.9	-7.0	-9.9	-7.9	-6.8
소비자물가상승률	18.7	14.4	4.8	6.9	7.6

자료: IMF, EIU

#### □ 제조업과 서비스업 호조로 2011년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스리랑카는 서비스부문의 성장과 수출 호조로 2002년 이후 연 6~7%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왔음.
- 2008년 정부와 타밀반군의 무력충돌 격화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제조업과 농업 부문의 부진 등으로 2008년에는 전년 6.8% 대비 다소 둔화된 6.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 정부와 타밀반군의 내전이 종식됨에 따라 부진했던 농업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고 산업생산증가율도 크게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은 3.5%로 크게 하락하였음.
- 2010년에는 건설업 등 광공업과 도소매업, 호텔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고, 농업생산이 증가세를 지속하여 8.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1년 경제성장률은 외국인직접투자 및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며 8.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GDP 규모도 60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 국방부문 지출 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비효율적인 징세, 광범위한 탈세, 낮은 소득 수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타밀반군과의 교전으로 인해 2009년까지 국방부문의 지출 확대에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공공투자 증대에 제약을 받았음.
- 2009년에는 재정수입이 감소한 반면,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과 군사작전 실시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하여 GDP 대비 9.9%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0년 인프라 개발사업으로 자본적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내전 종식으로 인해 국방부문의 지출이 축소되었으며 경기회복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7.9%로 축소되었으며, 2011년에도 재정지출 축소 등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6.8%로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 경기 회복으로 물가 상승폭 확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지출 확대, 국제유가 급등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7년 18.7%, 2008년 14.4%로 두 자리수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라 유가와 식료품가격이 안정되면서 4.8%로 하락하였음.
-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물가가 다시 상승하여 6.9%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등 수입 물가 상승,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7.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스리랑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ri Lanka: CBSL)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기준금리인 리포 금리(repo rate)와 역리포 금리(reverse repo rate)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11년 8월 말 현재 리포금리는 7.0%, 역리포금리는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 경제구조·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외의존도

- 스리랑카는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며, 특히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경제성장의 주요 관건임.

□ 열악한 인프라

- 인프라는 스리랑카의 투자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중 전력문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임. 비싼 전력 요금, 잦은 정전 등으로 인해 도시 소재 기업의 약 75%가 자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 협소한 내수시장 및 낮은 노동생산성

- 스리랑카는 인구 약 2,000만 명의 개도국으로서 인근 경쟁국들에 비해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내수시장 자체만을 겨냥한 투자가 어려운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노동생산성은 중국, 베트남 등 섬유산업 경쟁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서남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임금은 높은 편임. 경직된 노동법으로 인해 종업원 해고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며, 공휴일이 많고 고급 기술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나. 성장 잠재력

□ 관광지로서 잠재력 풍부

- 스리랑카는 국토의 사면이 모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안이어서 연중 내내 해변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고, 내륙지방에는 다양한 자연 생태공원과 고대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어 종합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함.
- 지난 몇년간 쓰나미와 내전의 영향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2009년 5월 정부와 타밀 반군간의 내전이 종식됨에 따라 관광객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10년 스리랑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약 46.1% 증가한 654,476명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1~4월 중 외국인 관광객 수도 전년 동기 대비 40.4% 증가한 278,959명을 기록함.

- 급증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 관광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관광상품 개발, 신규 호텔 건립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음.
- 관광산업의 성장이 추후 스리랑카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스리랑카 관광개발청(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TDA)은 2016년까지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른 ICT 산업의 급속한 성장**

- 스리랑카 정부는 기존의 농업중심 국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ICT 산업(유무선통신, 인터넷, 전자정부 등)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식과 부를 재분배하여 빈곤 축소와 생활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음.
  - 특히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2011년 2월 최대 이동통신사인 Dialog Axiatra가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는 등 통신산업은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국가 중 전화보급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동통신 부분의 발전 속도가 빠르며, 휴대폰 보급률 증가를 통해 사용인구가 2001년 67만 명에서 2010년 3분기 1,63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서남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 세계은행의 스리랑카 전자정부 구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간 통신 네트워크(Lanka Government Network: LGN) 구축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삼성네트웍스가 시행사로 참여중임.

**다. 정책성과**

**□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정책 지속**

- 스리랑카는 시장개방과 무역 증진을 위해 1998년에는 인도와, 2002년에는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는 한편,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의 회원국으로서 2006년 1월

서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에 서명하면서 회원국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음.

- 스리랑카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이익배당의 자유 보장, 자유로운 주식 양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임.
- 2011년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스리랑카는 107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필리핀(115위), 인도(124위), 방글라데시(130위), 베트남(139위) 보다도 앞선 순위임.
-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자유도와 지역경제 통합의 진전에 따른 시장 확대효과가 결합된다면 보다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 상업은행의 외국인투자자 예금 유치 허용

- 스리랑카 정부는 2008년 6월 상업은행들의 외국인투자자 예금 유치를 허용하였음. 이러한 정책을 통해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외국인투자자 예금을 활용하여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재정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관세 개편

- 스리랑카는 제조업 발달이 미흡해 대부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음. 정부는 그동안 조세수입 확대를 위해 수입제품에 총 10가지의 세금을 부과하여 수입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었음.
- 2010년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개선됨에 따라 정부는 2010년 6월 원자재, 기계류, 자동차,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원자재에 대한 수입부가세 폐지, 필수 원자재 수입에 대해 기존 10가지의 세금을 하나의 특별상품세로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음.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sup>f</sup>
경 상 수 지	-1,498	-3,986	-292	-1,471	-2,808
경 상 수 지 / G D P	-4.6	-9.8	-0.7	-3.0	-4.7
상 품 수 지	-2,527	-4,572	-2,101	-3,853	-6,008
수 출	7,640	8,111	7,085	8,307	10,885
수 입	10,167	12,682	9,186	12,161	16,893
외 환 보 유 액	3,509	2,561	5,358	7,197	8,400
총 외 채 잔 액	14,369	15,611	17,208	19,781	21,740
총 외 채 잔 액 / G D P	44.4	38.3	40.9	39.9	36.2
D . S . R .	6.8	9.3	11.4	11.1	10.0

자료: IMF, EIU

#### □ 상품수지 적자 폭 확대 전망

- 스리랑카는 석유와 주요 식료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인프라 투자 관련 자본재 등 수입이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수출은 의류, 차(tea), 고무 관련 제품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주로 소비재 중심에서 기계설비 등 자본재와 의류소재 등 원자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차와 의류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상품수출이 증가하였으나, 국제 유가 급등과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이 더욱 증가하면서 2007년과 2008년 상품수지 적자는 각각 25.3억 달러와 45.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미국과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세와 더불어 경제활동 침체로 인해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은 전년 대비 축소된 약 2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인프라 투자 증가 등에 따른 수입 규모 확대로 상품수지 적자가 38.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도에도 석유, 자본재, 의류소재 등 수입증가로 수입규모가 2010년 122억 달러에서 2011년 169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상품수지 적자가 60.1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적자폭도 확대 전망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모두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이전수지는 해외근로자 송금에 힘입어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1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8년 25.7억 달러, 2010년 36억 달러로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08년에는 관광산업의 부진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9.8% 수준인 4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음. 2009년 경상수지 적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와 이전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GDP의 0.7%인 3억 달러로 축소되었음.
- 2010년에는 이전수지 흑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수준인 1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도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2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

- 외환보유액은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에 힘입어 2008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경기 침체로 외환보유액이 2007년말 35억 달러에서 2008년말 26억 달러로 감소하여 채권국들의 우려가 커지자 스리랑카 정부는 2009년 3월부터 IMF 차관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음. 2009년 7월 IMF는 스리랑카 경제 재건을 위해 26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2010년 말 스리랑카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54억 달러 대비 약 34.3%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08년 1.8개월에서 2010년 말 5.3개월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경기 회복으로 GDP 대비 외채 비중 감소

- 총외채잔액은 2008년 말 156억 달러, 2009년 말 172억 달러, 2010년 말 1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GDP 대비 총외채수준은 2002년 56.6%에서 2008년 38.3%로 하락하였음. 2009년 막바지에 이른 내전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GDP 대비 총외채비율이 40.9%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2010년에는 39.9%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에도 36.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D.S.R.은 2008년 9.3%에서 2009년 11.4%로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 11.1%로 소폭 하락하는 등 10%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동향

□ 라자파크세 대통령 재선 성공에 따른 정치기반 확립

- 2005년 1월 여당연합인 통일인민자유연합(United People’s Freedom Alliance: UPFA)의 제1당인 스리랑카자유당(Sri Lanka Freedom Party: SLFP) 출신 마힌다 라자파크세(Mahinda Rajapakse)가 집권한 이후 스리랑카의 정치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9년 5월 타밀반군과의 내전종식 이후 2010년 1월 실시된 대선에서 라자파크세 대통령이 약 58%의 득표율로 경쟁후보였던 사라스 폰세카(Sarath Fonseka) 전 합참의장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였음.
- \* 이 과정에서 폰세카를 지지하는 군부의 쿠데타를 우려한 라자파크세 대통령이 대선 개표 당시 군병력을 동원해 폰세카 후보를 사실상 감금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폰세카 후보를 긴급 체포하기도 하여 야당 후보 탄압 및 부정 시비 논란이 두번째 임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2010년 총선에서 여당연합인 UPFA의 승리

- UPFA는 2010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총 225석 중 144석을 차지하여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2. 사회 동향

### □ 정부와 타밀 반군간 내전 종식

- 2008년 1월 타밀 반군(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과의 휴전협정 폐기이후 정부가 타밀 반군에 대하여 대대적인 공습을 벌여 타밀 반군이 패배함에 따라, 25년 이상 지속된 정부와 타밀 반군간의 내전이 2009년 5월 종식되었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민간인 피해(민간인 7만명 이상 사망 추정)와 관련하여 미국, EU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싱할리족과 타밀족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과 비난 여론에 대한 라자파크세의 강경대응은 장기적으로 정치적 안정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세계 원조기관들이 오랜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의 경제개혁과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가 민간 구호단체의 접근을 일부 통제하고 있어 민간인 피해 사실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 국가 비상사태 해제

- 라자파크세 대통령의 재선 성공 및 여당연합의 총선 승리로 정권 기반이 굳건해지자, 정부는 내전 기간에 타밀 반군 및 반군지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2005년 선포했던 국가 비상사태를 2011년 8월 해제하였음.
- 그러나 싱할리족과 타밀족의 갈등이 아직 해소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반군의 테러공격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강화함.

## 3. 국제 관계

### □ 인도 및 중국과의 협력 강화

- 스리랑카는 인도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타밀 반군 및 해양 경계 확정 등의 문제로 한때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1987년 양국간 평화협정 체결, 1990년 인도 평화유지군 철수, 1998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점차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특히 인도 정부가 스리랑카의 전후 복구에 적극 참여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6월 라자파크세 대통령이 내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인도를 공식 방문하여 스리랑카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양국간 전력 시설망 연결과 범죄문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또한 인도정부는 스리랑카의 북동쪽 지방 인프라 개발 투자에 10억달러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합작투자의 형태로 난민들을 위한 5만호 주택건설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스리랑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ri Lanka: CBSL)에 따르면 2010년 중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약 1.1억 달러를 기록하여 스리랑카 투자국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함.
- 한편, 지난 수년간 중국은 5차례에 걸쳐 1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하면서 스리랑카의 최대 원조공여국이 되었음. 2011년 8월 라자파크세 대통령은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간 무역, 투자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함. 2011년 1~7월 중 양국간 무역규모는 16억 달러 수준으로 중국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함.

#### □ 서방국가와 긴장관계 유지

- 2011년 7월 미국은 스리랑카가 내전 말기 인권 침해 문제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2012년 원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스리랑카는 서방 국가들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스리랑카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어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기 관	종 전 등 급	현 행 등 급
OECD	6등급(2010. 4)	6등급(2011. 3)
S&P	B(2008. 12)	B+(2010. 9)
Fitch	B+(2008. 4)	BB-(2011. 7)

- Fitch는 2008년 4월 높은 인플레이션, 만성적인 재정적자, 유가상승으로 인한 상품수지 악화, 외채부문의 전망 악화,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교전 격화 등을 근거로 스리랑카 장기외화표시채권의 등급을 BB-에서 B+로 한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며, S&P도 2008년 12월 스리랑카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에서 B로 하향 조정 하였음.
- S&P는 2010년 9월 조세수입 확대 및 IMF의 정책 지원을 통한 스리랑카 정부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반영하여 다시 B+로 등급을 상향 조정함. Fitch도 2011년 7월 경제 회복, 재정수지 적자 축소 노력 등을 반영하여 스리랑카 장기외화표시채권의 등급을 B+에서 BB-로 상향 조정함.

### 2. 외채상환태도

####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앞으로 2010년 말 기준 외채에 대한 연체는 없으며, 2010년말 단기외채잔액은 전년 99백만 달러 대비 증가한 20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중장기외채잔액은 전년 1,455백만 달러에서 1,381백만 달러로 감소하였음.
- 스리랑카는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서 단기적으로는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됨.



## V. 종합 의견

- 스리랑카는 2002년 이후 서비스부문의 성장 및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9년에 내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로 전년 6.0% 대비 크게 낮아진 3.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2010년에는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고, 농업생산이 증가세를 지속하여 약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전년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지출 확대, 국제유가 급등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8년 14.4%로 두 자리수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4.8%까지 하락하였음.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6.9%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7.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스리랑카는 막대한 국방부문 지출 등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주요 식료품 등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인프라 투자 관련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09년 5월에 25년 이상 이어져 온 정부와 타밀반군의 내전이 종식되었으나, 싱할리족과 타밀족의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반군의 테러 공격가능성이 남아 있어 아직 스리랑카의 사회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한편 2010년 라자파크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총선에서도 여당이 압승하면서 정권기반이 굳건해졌음.
- 내전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외채규모가 증가하였으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서 단기적으로는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책임조사역 김찬수(☎02-3779-5704)

E-mail : [avik@koreaexim.go.kr](mailto:avik@koreaexim.go.kr)